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김지홍\*\*

## 目次

- |                        |                                |
|------------------------|--------------------------------|
| I. 방언 연구의 흐름           | IV. '-수/우' : '소/오+이'로의 재분석 가능성 |
| II. 대우법 연구에서의 모순과 극복방법 | V. '-음/히'과 '-수/우'의 분표에 대한 해석   |
| III. 제주 방언 대우 연구의 오류   | VI. 제주 방언 연구의 의의 : 직관과 사실의 거리  |

## I. 방언 연구의 흐름

방언에 대한 관심은 기원 전으로까지 올라간다. 특히 중국 문헌에 국한해서 살펴 보면, 이아(爾雅)가까이 두고서 표준어를 찾는 데 참고할 만한 책(가) 있고 양웅(기원전 53 ~ 후 18년)의 방언(方言: 지역 언어)이 이어지며, 이런 노력들이 사고전서에서 소학(小學)으로 포괄된다. 이런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현재 중국말과 우리말의 차이를 적어 놓은 계림유사(鷄林類事, 1103년경 孫穆)라든지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 1408년 추정)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인상적인 관찰을 통하여 차이점들에 대한 어휘 대비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쓰여 있다.

본격적인 국어학이 일제 시대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때, 그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두드러지게 어휘에 대한 관심을 쉽게 살필 수 있다. 어휘적인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민간어원이나 다른 어원 추구 방식으로 그 내력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 이 글은 "제주 방언 통사의 매개변항 설정: 대우 형태소의 경우"라는 이름으로 백록어문학회 제 7회 학술대회('00.11.4)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조금 고친 것이다.

\*\* 경상대 교수

1) 이미 전한 문제(文帝) 기원전 179-157년) 때에 이아 박사를 두었으므로, 이 책은 그 이전에 상당한 정도로 임형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른바 당시의 '설명'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점에서, 방언 연구의 흐름은 본격적인 언어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어휘 차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직관에 바탕을 둔 소박한 이 흐름은, 역사주의 언어학을 공부한 이들에 의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방언이 역사적 문헌의 어느 부분을 반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언어 사이의 친족 관계나 분열 시기들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방언 연구의 목적이 특정 시기의 언어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 아래, 7~8세기의 신라 시대의 언어 또는 15세기 시기의 언어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방언들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가 소개되면서, 방언을 다른 언어의 보조 도구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족적이고 독립적으로 체계로서 기술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다. 특히 이 생각은 미국 인디언 언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개별 언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쪽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를 '원자 방언학'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는 음소 결정으로부터 형태소와 구절과 문장을 결정해 나가는 연구 방향을 엄격히 상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언어학이 비로소 '아마추어' 시대를 벗어나서 '프로' 시대로 들어갔다고 평하기도 한다. '제주 방언'을 굳이 '제주어'라고 낮설게 부르려는 시도는, 한 시대 전에 폄하했던 구조주의 생각을 추종한 결과이다. 이 정신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독립적으로 "제주시어"가 있고, "1도동어"가 있으며, "1도동 100번지어"가 있고, "홍길동어"가 있으며(이를 'idiolect' 개인 방언이라고 불렀다), "10살 적의 홍길동어"와 "40살 적의 홍길동어"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상대주의는 항상 자기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다. 상대주의는 그 원리조차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그 상대적라는 원리조차 상대적이라면, 그 적용 대상이 자의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 상대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원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어와 언어가 사뭇 다르다는 주장을 언어 상황에 적용한다면, 결코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동떨어진 결론이다.<sup>2)</sup> 언어와 언어가 소통되는

2)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 콰인(Quine)이 거론된다. 원주민과 함께 현지 조사자가 수풀로 함께 갔는데, 토끼가 튀어 나오자 원주민이 'gavagai'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 말이 토끼의 귀가 긴대를 뜻하는지, 토끼 색깔이 하얗다를 뜻하는지, 토끼 눈이 빨강다를 뜻하는지,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것은 결코 언어 때문이 아니다. 언어를 매개로 한 우리의 경험 지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 밑에 깔린 생각은, 전체를 찾기 위해 최소 단위의 계열체를 이루는 형식을 정의하려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통합체를 찾아내면 비로소 전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희망은 최소 단위의 계열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자의적임), 뿐만 아니라 최대 구조를 이루는 통합체가 무한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대상이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허구이거나 또는 오직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만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주의 연구 계획은 음소와 형태소의 설정 단계까지는 새로운 기여를 하였지만, 단어와 단어가 묶여 있는 구절을 처리하는 데에서부터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순이'라는 명사와 '사진'이라는 명사가 묶여 '순이 사진'이라는 명사 구절을 이룰 적에, 이 명사 구절의 의미를 오직 더 작은 구성단위를 합성하여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즉, 중의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순이 사진'은 ① 피사체로서 '순이'가 찍힌 사진일 수도 있고, ② 소유자로서 '순이'가 갖고 있는 고향 사진일 수도 있으며, ③ '순이가 철수에게 준 사진'처럼 관형절이 얹혀 있는 형식까지 고려하면 의미의 폭발적 증가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런 한계 때문에 연구 계획을 거꾸로 바꾸어 새로운 연구 방향이 시도되었는데, 이를 '보편문법' 연구 계획이라고 부른다. 30년 넘게 여러 언어들에 대상으로 하여 이 흐름이 추구되어 오면서, 원리와 매개변항(매개인자)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극단적인 쪽에서는 통사 운영의 원리는 인간 언어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하며, 언어들 사이의 차이는 다만 어휘들 속에 들어 있는 매개변항(매개인자)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sup>3)</sup>

---

토끼가 빠르게 달린다는 뜻하는지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물리학의 불확정성을 언어 상황에 응용한 주장임). 그러나 어린이 언어 습득에 대한 30년 넘는 연구 결과로, 이 문체가 대한 잘못 제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들이 어휘 습득과정에는 전체성 가정과 베타성 가정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이 생각을 개관하려면 촘스키(2000) '언어 및 정신 연구의 새 지평'(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보기 바람(출고 2000 "촘스키 교수의 내재주의 언어관에 대하여", 『배달말』 27), 하나의 보편 문법 아래 어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려면 졸고(1999) "어휘의 의미 표상에 대한

아직 방언을 다루면서 어떤 것들이 매개변항(매개인자)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들 사이의 위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그 대신, 언어는 '변이체'라는 사회 언어학의 전제를 수용하여, 80년대 초부터 방언들 사이에 등어선 점수를 매기는 작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 언어학의 전제를 존중할 적에, 한 개인의 언어 수행이 최소한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연구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 용어로 이를 'codeswitching'이라고 부름). 제주 방언 화자는 토박이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에 따라 충분히 공통어도 구사한다. 예민한 연구자의 귀가 아니라도, 충분히 두 방언 사이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규정될 만하며, 이는 결코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등어선 점수 매기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오직 양적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최근 인지 과학과 언어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두뇌 속에 음운·통사·의미 처리 부서들이 따로 자리잡고 있고, 어휘 창고 또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창고들이 개별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등어선의 구획에는 질적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 대우법 연구에서의 모순과 극복 방법

우리 국어의 통사론 기술에서 여러 문제점들과 모순들이 있지만, 필자는 그 중에서도 대우법(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편의상 '대우'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기술에 들어 있는 모순이 제일 쉽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를 “층위 혼용”의 모순과 “원칙 적용”의 모순이라고 부르겠다. 앞의 것은 화용론과 통사론의 층위를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데, 소위 어머 형태소들의 ‘융합’ 현상 때문에 예리하게 이런 점에 초점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뒤의 것은 충실히 교착어 전통을 따른다면, 유무 또는 이항 대립으로 통사 형태들이 실현될 것이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자 대우 체계를 정도성의 대립으로만 보고서 그 동안의 논의들이 몇 등급(3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을 설정하는 지에 집착해 온 사정을 가리킨다.<sup>4)</sup> 필자는 청자 대우 체계도 굳건하게 그리고 충분히

연구”(배달말 #25, <http://mongae.gsnu.ac.kr/~jhongkim/html/jhongkim.html>)를 참고하기 바람

4) 최근의 최적성(optimality) 이론에서는 가부의 문제를 정도성의 문제로 완화하는 방식이 주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의의 밑바닥에는 다수의 가부 결정 요소들이 위계에 따라 주어져 있어야 하며, 위계 결정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예를 들면, 원리를 많이 어긴 것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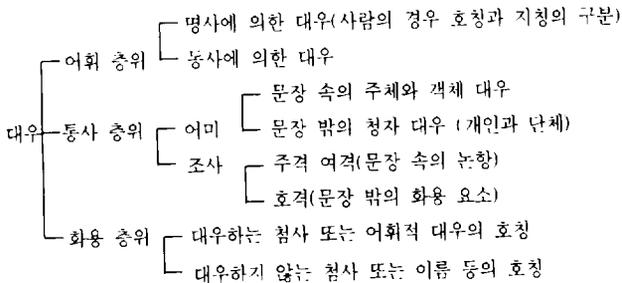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하게 이항 대립으로 기술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만들기 위해, 여기서는 다른 논증 없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어 대우법의 얼개만을 드러내기로 하겠다. 먼저 대우법의 근간은 일반적으로 언어 표현에서 격식투와 비 격식투를 나누는 수행 방식에 뿌리를 둔다. 우리말의 예에서 보면, 9시 뉴스의 말투는 격식투이고(‘했습니다’ 투), 서세원이나 김국진의 말투는 비 격식투이다(‘했어요’ 투). 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말하는 말투와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는 말투의 대립이다. 어느 언어에서나 언어 수행의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상정되며, 이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흔히 사회학에서 나 자신(self)을 공적인 개인으로서의 나(me)와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나(I)를 구분하는 것과도 통하는 것이다. 격식투는 ‘공적인 내’가 쓰는 말투이고, 비 격식투는 ‘사적인 내’가 쓰는 말투이다. 우리 나라는 이전에 신분 사회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 바탕 위에 신분으로 말미암는 언어적인 구별을 도입함으로써 다소 복잡해 보이는 대우 체계를 써 왔다. 대우라는 것은 결국 이런 보편적 질서 위에, 문화 특성에 따른 추가 요소들을 덧엮힌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관찰되는 대우의 범위는 어휘적인 대우에서부터 통사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대우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소략하게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대우 표현의 실현 범위



어긋 것 사이의 선택)

(2) 청자 대우 형태소의 대립 모습(서법을 고정하여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에만 국한시킴)

청자 대우	[+격식]	[+대우] ⇒ (오) : 하-오, 하-으시-오, 하-으시-옵시-오, 하-옵시-오
		[-대우] ⇒ (게) : 하-게, 하-으시-게
	[-격식]	[-대우] ⇒ (요) : 하 <sub>y</sub> -어-요, 하-으시-어-요
		[-대우] ⇒ (어) : 하 <sub>y</sub> -어, 하-으시-어 <sup>5)</sup> , 하 <sub>y</sub> -어-으라 <sup>6)</sup>

먼저 대우 표현을 시행하려면 대우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 대우의 동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매우 단순하게 '나이 차이'라고만 가정하겠다. 즉, 나이 차이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변수들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우리말의 대우는 어휘·통사·화용 층위에서 관찰된다. 어휘적 층위의 대우는 생략하고, 형태소 실현과 관련된 통사 층위의 대우와 화용 층위의 대우를 살피기로 한다. 통사적 층위의 대우에서 어미에 있는 구분과 조사에 있는 구분은 서로 평행하다. 동사가 거느리는 요소를 흔히 '논항'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격조사로 주격이나 사격으로 실현된다. 이들은 전문 용어로 '외부 논항'이라고 불린다. 이른바 '내부 논항'으로 불리는 대격은 대우 표시와는 무관한데, 중세 국어에서 대격 일치소로 거론된 '-오'-([마야, 나흔 부처]) 또한 대우와 무관하다.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물음 제기와 설명을 본격화한 적이 없다. 필자는 현재 잠정적으로 내부/외부를 나누는 계층성 현상 또는 논항의 비 대칭성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5) 대우 자질이 없으면서도 [-으시-]가 들어간 것은 반어로 해석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6) 종결 어미 뒤에 다시 종결 어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있다. '먹어, 먹으라' 모두 명령의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무표적인 '먹어' 뒤에는 다시 '-으라' 형태소가 실현될 수 있다. 어린 아들이 동물원에서 냇을 놓고 코끼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그만 가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들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나는 다시 '그만 가자구나[가자+구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밖에 비가 오자 빨래를 거뒀듯이 '밖에 비가 온다'고 말을 했지만, 머느리가 그걸 듣지 못했는지 반응이 없다면, 시어머니는 다시 '밖에 비가 온단다[온다+온대]라고 말을 할 것이다. [-어라]를 '어'와 '으라'로 분석한 것은 임홍빈(1984) "청자 대우법 상의 '해' 체와 '해라' 체"에서가 처음이다. 여기서 명령 서법을 뒤섞어 집어 넣는다고 비판될 수 있겠다. 그러나 비록 도출 과정이 덧붙여 있는 실현체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서술 단정을 나타내는 '-어' 종결어미가 들어 있으므로, 분류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화용적 대우는 '요(제주 방언의 '예/야/양), 말이에요/말씀이죠(제주 방언의 '마씀), 선생님, 사장님'과 같은 요소들이 임의의 XP 통사층위에 인접하여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요소가 전혀 실현되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여러 번 실현되더라도, 전혀 통사의 적격성을 위배하지 않는다(제주 방언에서 매우 빈도가 높은 군말 '이'는 화용적으로 청자에게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비 대우 화용 침사이며,<sup>7)</sup> 비슷하게 경남 방언에서는 분포상 문장 뒤에 나타나는 '아이가, 그자' 등이 관찰된다). 이 방식은 임의의 언어 표현에 추가되는지 여부로써 대우가 표현되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방식이며, 1차원적 운용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통사적 대우는 반드시 특정한 어미에 일치되는 논항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용적 대우에 비해 입체적 방식이며, 2차원적 운용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유표적인 대우 방식은 여기서 논의로 한 어휘적 대우이다. 이 경우 하나의 어휘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하여 적용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통사 층위에 실현되는 청자 대우 형식의 기술은 엄격히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에 제시한 도표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네 개의 하위 부문으로 나뉘는데, 첫 교점을 나누는 자질은 격식성 여부이고, 다음 교점을 나누는 자질은 대우 여부 여부이다. 제일 무표적인 형식은 [-격식, -대우] 자질로 표시되는 형태인데,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종결어미 '-어'를 갖고 있으며, 명령 서법일 경우 화용적 동기나 전체가 만족된다는 조건에서 다시 '-오라' 종결어미가 더 추가될 수 있다.<sup>8)</sup> 그런데 격식을 차리지 않고 대

7) 화용 침사들은 그라이스(P. Grice 1988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P)에서 직접하듯이 화용상의 선제와 함의들이 깃들여 있는 것이므로, 그 전체의 내용과 함의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이'는 임의의 XP에 붙는다는 점에서, XP 성분을 확인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마씀'은 오직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 그리고 문장(발화)에만 붙는 특징이 있다. '마씀'은 '양'(야) 또는 '예'와 통합되어 '마씀양'(말씀이예요)과 '마씀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이 작업 동시에 반드시 '그되 가카 마씀'(그곳에 갈까요?)은 가능한데, '\*그되 가카 양?'은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줘야 한다. '마씀'은 또한 '가게 마씀'(가십시오)은 가능하지만 '\*갈라 마씀'이 불가능한데('갑주 뭐! \*갈라 뭐! \*가게 뭐!'), 그 까닭도 언급되어야 한다. 필자는 작업 가정으로 대략 두 가지 큰 열개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motion*(상위 언어, *type*)이고 다른 하나는 *use*(대상 언어, *token*)이다. 후자의 경우 여러 갈래로 다시 나뉠 것인데, 침사의 쓰임을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8) 석출 단정의 종결어미 뒤에 다시 추가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덧붙여 있기 때문에, 침사 '요'가 구현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화용적 실현 방식이 서로 배타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우를 부여할 경우에 화용 층위의 첨사 '요'가 무표적 형태에 덧붙는다.

격식을 차리고서 청자를 대우하는 데에는, 자신보다 손윗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아랫사람도 있을 수 있다. 뒤의 경우에 [+격식, -대우]의 자질로 표시되며, 일관되게 '-게' 형태가 실현된다. 이 어미와 호응될 수 있는 전형적인 부름말은 '자네'이다. 공동어에서 '자네'는 나이가 든 청자를 어른으로 대접하여 부르는 말이다. 따라서 초등 학생에게 어른임을 나타내 주는 '자네'를 쓴다면 아주 기묘해지는 것이다(전라 방언에서는 손윗어른에게도 쓸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개변항(매개인자)을 설정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격식을 차리고서 손윗어른으로 대접하는 표현이 있는데, 일관되게 '-오'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sup>9)</sup> 여기서만은 특별하게 '-으시-'와 '-읍시-'<sup>10)</sup> 두 형태소가 통합체를 이루며 실현될 수 있는데, 이는 두 계열에서 최고 등급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우라는 것이 언어로써만 이루어져야 한다면(예외적인 어휘 대우를 제외할 적에), 대우는 그 일반적인 표시 방식을 언어 형식을 더 추가함으로써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몸이나 옷차림새에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바르거나 붙이는 행위와 같은 이치이다.<sup>11)</sup>

### III. 제주 방언 대우 연구의 오류

제주 방언의 대우 표현들이 단편적 기술을 벗어나, 이승녕(1956), 박용후(1960),<sup>12)</sup>

- 
- 9) 울산 방언을 쓰는 분이 진주에 와서 '술 좀 드소'라고 말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대단히 거부감을 보여 아주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진주 방언에서는 추가의 매개변항으로서 '-으시-'의 대응 형태소가 들어가 있는 '술 좀 드이소'(술 좀 드시오)라는 표현이 적형이었기 때문이다. '-오' 계열의 형태소는 임금께 아뢰는 상황에서 "아뢰오!"라고 굳어져 있는 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어말 어미 형태소로서는 최고의 대우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형태소가 너무 오랜 기간이 쓰여져 왔기 때문에, 언어 자체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0) '-읍시-' 형태소는 특이하게 서법상의 제약을 보이며(읍시오, 읍시다), 두 형태소가 융합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더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서법 제약은 '으시' 형태소가 <경험주 experiencer> 의미역과 공기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1) 필자가 자주 접하고 있는 경남 진주 방언의 예를 들면, "오소, 오이소, 오시이소, 오시이소 예"와 같은 예에서, 형태들이 늘어날수록 더 대우의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 물론 각 형태소들이 고유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대우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대우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 12) 제주 방언 연구사에서 박용후(1960) '제주 방언 연구'(동원사 간행, 유인본 총 492면)은 당시 수준으로는 단연 압권이다. 그럼에도 연구사를 쓰는 이들이 회귀하기 때문인지 제대로 삼피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1988), 김귀자(1973), 현평효(1974, 1977), 홍종립(1975)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13)</sup> 여기서는 앞에서 개관한 한국어의 일반적인 비판에 기대어, 제주 방언의 자료들을 고려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앞 장에서는 '모순'이란 말을 썼고, 여기서는 '오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모순된 가정에 바탕을 두고 그 내용을 제주 방언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무의미하게 양산되는 한계를 벗어나, '질적으로 낙후'된 제주 방언 연구가 제 궤도에 오르려면, 한국어의 일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더 길하여 이전의 연구들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4)</sup>

장자를 대우하는 등급을 다루면서, 이승녕(1956)에서는<sup>15)</sup> 평칭·중칭·존칭·극존칭의 체계를 상정하였다. 박용후(1960, 1988)에서는 아주 높임·예사 높임·예사 낮춤·아주 낮춤의 체계를 상정하였고, 현평효(1974) 및 홍종립(1975)에서는 흐라체·흐어체·흐서체의 삼분 체계를 상정하였다. 현재 이 뒤의 체계가 제일 많이 수용되고 있는데, 현평효(1977a, 1977b, 1977c)에서 거듭 똑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진다.<sup>16)</sup> 이 장에서는 주로 뒤의 체계의 타당성에 대하여 비판해 나가기로 한다.

### 1. 서법 층위의 뒤섞임

양상이 사건과 화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라고 할 때에, 서법이란 이와

---

기 못하니 아쉬움이 있다. 이 책을 개정하여 같은 저자는 1988년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및 과학사에서 '제주 방언 연구' 자료권·고찰편으로 출판한 바 있다.

- 13) 이어 연대순으로 현평효(1991) 홍종립(1994, 1995) 고창근(1993) 우창현(1993)들이 있다.
- 14) 이런 전환의 첫 계기로서 필자는 고영진(1991) '제주도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회상법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를 끄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필자도 1992년 글에서 공동어의 '-겠'에 대응하는 '-으크-'를 다루면서, 현평효(1985)의 오류들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현평효(1985)가 극복 대상으로 간주된 것은, 결코 그 업적의 현격한 공로를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다. 새로운 생각의 틀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논의를 열기 위한 생각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그곳에서는 기술 언어학의 목표인 '기술'에만 초점이 들어 있고, 적절한 '선명'의 단계에는 채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15) 이 글은 1978년 탐출판사에서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로 재 간행된 바 있다. 심약 이승녕 선생의 제주 방언 조사에 연암 현평효 선생이 적극 도와 주었음을 적고 있다. 심약 선생의 미려 마려한 질문지 형식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었겠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연암 선생의 직관이 어느 정도 간접 또는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 16) 이 글들은 1985년 이우출판사에서 '제주도 방언 연구: 논고편' 속에 모두 모아져 있다.

대립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의문·명령·청유·감탄 등으로 나열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한 방향으로만 언어정보가 흘러가느냐, 또는 청자에게서 화자 쪽으로도 전달되는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 들로 나뉠 수 있다. 전자를 일방향 서법이라고 하고, 후자를 양방향 서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런 관점에 서면, 서술과 감탄이 일방향 서법 속에 들어가고, 의문·명령·청유들이 양방향 서법 속에 들어간다. 같은 범주의 서법 항목들은 상황에 따라 쉽게 서로 교차되어 쓰일 수 있다.

일방향 서법에서는 다시 하위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 언술 내용이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나, 아니면 비로소 알게 된 정보이나를 나누게 된다. 양방향 서법에서는 먼저 청자에게서 화자 쪽으로 전달되는 것이 언어 정보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것(특히 행동)이나에 따라 구분이 이루어진다.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면 의문 서법이 되고, 행동으로 전달되는 것이면 명령이나 청유 서법이 된다.

실제 언어 자료들은 이 층위보다 더 세세한 구분들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의문에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경우(自問)와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경우(質問)가 있으며, 질문 형식에는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과 '무엇' 류에 대한 질문으로 나뉜다. 반문(反問)이나 설의(設疑)와 같은 형식은 화용적 전제를 담고 있으므로, 문법 층위와 화용 층위에 나란히 걸쳐 있는 형식이다.<sup>17)</sup>

우리가 위 서법 범주의 구분에 충실한다면, 청자 대우의 체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동일한 서법 범주의 항목들을 대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흐라체와 흡서체는 양방향 서법 항목들이며, 흐여체는 일방향 서법 항목이다. 청자 대우이기 때문에, 체계 구성에 화자와 청자가 관련을 맺는 양방향 서법만을 써야 한다면, 일관되게 그 전제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청자 대우라 하더라도, 화자의 대우 의도에 의해서 대우 형태소가 실현된다고 보고, 화자 중심적인 체계를 구성한다면, 한방향 서법 항목들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주 방언의 청자 대우 구성체계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지키지 않고

17) 장영준(2000)에서 자문이 질문으로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ㅎ**여체 항목에는 '먹크라'(현평효 1985:147)의 **ㅎ**라체를 예시해 놓고 있고, **ㅎ**라체 항목에는 '먹키여, 물이여'의 **ㅎ**여체를 예시함으로써, 전형적인 범렬(paradigm) 구성에서조차 일관성을 놓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이 방언에서 **ㅎ**여체와 **ㅎ**라체로<sup>18)</sup> 구분하지 말아야 함을 반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sup>19)</sup>

더욱이, **흡**서체는 '**ㅎ**+**읍**시+어'로 재 분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의 직관에 '잡습서'(잡수십시오, 자십시오)보다는 '잡수십서'라는 표현이 더 나아보이고, 마찬가지로 '**흡**서'보다는 '**흡**십서'라는 표현이 더 대우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생각된다.<sup>20)</sup> 만일 **흡**서체가 궁극적으로 **ㅎ**여체에서 '읍시'라는 형태소가 더 들어가 있는

- 18) 명령형이 청자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자의 존재가 여러 서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태소를 중심으로 하여 명령형 형태소의 기원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여물지 않은 생각이지만, '오라'의 형태소가 기원적으로 제시(\*일다; 下野)로부터 도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행동 언급 내용[이다]와 같은 상위 언어 형식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는다.
- 19) 최근 **홍종림(1994)**에서 하나의 서법에 국한하여 형태소들의 실현 환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 20) '자십서'(잡수십시오)라는 발화는 무가 채록에서 허다하게 발견된다. 이는 '잡수다'라는 대우 어휘에 '으시'와 '읍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잡수+으시+읍서, [여기서 '읍서'는 '습+으시+어'의 응축된 형태로 생각됨]). '잡수십서'으로부터 '읍수'의 탈락을 거쳐 '자십서'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제주시**에서(60-70년대) 성장하였기 때문인지, 이 형태소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가장 바람직한 실현 형식이다. 일상적인 인사말에서도 "흔저 들어오십서!(어서 들어오십시오), 게은 잘 가십서!(그러면 잘 가십시오), 편안히 주무십서!(편안히 주무십시오)"는 아주 익은 투식이다. 그러나 **제주** 방언의 대우 형태들을 논의하는 글들에서 더러 '으시'가 최근에 들어온 형태소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백걸음 양보하여 '으시'가 외래적 요소라는 주장이 옳다면, 그 주장은 최소한 **제주**시 중심의 '모관(牧管)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적용될 것이 아닌가 싶다. 우연히 그런 주장을 편 분들이 모두 모관에서 세거(世居)한 적이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738년 **홍충정** 목사의 '새로 청금안을 닦는 서문(新修靑衿案序)'를 보면, 모관 지역에 신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제주 유맥 육백년사 발간위원회 [출간 중] '제주의 고문서' 번역을 참고 바람. <http://mongae.gsnu.ac.kr/~jhongkim/html/jhongkim.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분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적에,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최소한 모관 지역의 상류층에서는 '으시'가 쓰이고 있었을 듯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라 옛 노래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소(賜)가 **제주** 방언에서 아무 까닭도 없이 비어 있었다는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덧붙여, 필자가 20대에 **제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조사를 나갔을 적에(70년대 중반), '야방, 어망'이라는 비칭어(卑稱語)가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는 부름말(呼稱語)로 쓰이고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필자에게는 비칭어(또는 최소한 부모가 눈앞에 없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가리킴말(指稱語))임에 틀림없었지만, 그 당시 그곳 화자들에게는 전혀 거부감 없이 부름말과 가리킴말로 동시에 쓰이고 있었던 것

것이라면, 흡서체와 흡여체의 구분은 추가 형태소 유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고, 계열체로서의 범렬을 구성할 수는 없다.

## 2. 격식투와 비 격식투

어느 언어에서나 격식투·비 격식투의 구분이 있다. 어휘 대우를 제외하면, 격식투는 비 격식투에 비해 형태가 긴 경향이 있다. 우리말의 대우 표현은 기본적으로 맨 밑바닥에 이 구분이 들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옛날 신분 사회에서 서로의 신분을 구분해 주는 여러 언어 표지들이 추가되었다.<sup>21)</sup>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신분 사회가 아니므로, 신분을 표시해 주는 형태들의 기능이 ‘친근함’과 ‘소원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바뀌기도 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구분이 언어 보편적이라면, 제주 방언의 대우 형태들도 격식투·비 격식투를 구현하고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무엇을 격식투로 보고, 무엇을 비 격식투로 볼 것인가? 앞의 (2)에서 보았듯이, 비 격식투는 첨사가 들어감으로써 대우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쉽게 비 격식투를 찾아낼 수 있다.

격식투는 고유한 대우 형태소에 실현에 의해 표시된다. 예를 들어,<sup>23)</sup> 서술문 형식으로

(3가) 이건 가: 이 책이어 (이것은 그 아이 책이다)

나) 이건 가: 이 책이라 (이것은 그 아이 책이다)

이다(이는 무표적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아마 신분을 나누어 놓는 시대에도 입말은 변이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 편차가 신분 사회를 유지하는 언어적 징표가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필자는 그 개연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제주 방언에서 ‘으시’는 최근에 들어온 외래 형태소란 주장은, 사회언어학의 전체와 제주시(성안 : 제주성 인근) 지역의 변이를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나온 추측일 것으로 믿는다.

- 21) 현대적 편견의 하나가 영어를 배움으로써 우리말의 대우 표현이 엉망으로 되어 간다는 기우(杞憂)이다. 이는 임진 왜란·육이오 동란들이 언어 변화를 초래한 것처럼 과장했던 것과 한가지이다. 대우 표현은 다른 나라 언어의 간섭 없이도, 국어의 역사 속에서 자율적으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 22) 비록 본고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성낙수(1992)와 고창근(1993)에도 격식투와 비 격식투의 언급이 들어 있다.
- 23) 공통어와의 대역은 이 논의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우선은 대우 위계를 반영하지 않고 동사의 원형 형태로만 제시한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라는 표현에서 '마씀'을 붙여 보면,

- (4가) \*이건 가: 이 책이어 마씀
- 나) 이건 가: 이 책이라 마씀

에서와 같이 문법성에 차이가 생겨난다. 이는 형태소 '-어'와 '-라'가 격식성에서 대립됨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 (5가) 삼촌 내일 떠남찌 (삼촌 내일 떠나다)
- 나) 삼촌 내일 떠남쭈 (삼촌 내일 떠나다)

(5)에서도 화용 침사를 허용하는 것이 다른데,

- (6가) \*삼촌 내일 떠남찌 마씀
- 나) 삼촌 내일 떠남쭈 마씀 (삼촌 내일 떠나다 말씀입니다)

(6)에서처럼 차이를 볼 수 있다. 이 또한 격식투의 형태소와 비 격식투의 형태소 대립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청자를 대우하는 격식투에서 청자 대우의 자질을 갖고 있는 형태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수-'이다(음운론적 이형태로서 '-우-'가 있음: 성낙수1992, 홍종림1995).

- (7가) 이제사 오람쭈다 (이제야 오고 있다)
- 나) 이제사 오람찌 (이제야 오고 있다)

(7)은 격식투의 대립을 구현하고 있는데, 모두

- (8가) \*이제사 오람쭈다 마씀
- 나) \*이제사 오람찌 마씀

(8)과 같이 화용 침사 표현이 가능하지 않다.<sup>24)</sup>

---

24) '오람쭈다계'와 '오람찌계'가 가능한데, 필자의 직관으로 이 '계'라는 화용 침사는 청자가 잘

3. '-저'와 '-주'의 의미자질에 대한 구분

'-저, -주' 형태소들은 현평효(1977, 1985)에서 하대 및 평대 형태소로 다루어졌다. '-저'가 하대라면 '무표적'인 형태소로서 첨사의 부착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저 마씀'은 가능한 결합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저, -주'를 대우 등급의 차이로 결론짓는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화자인 나보다 나이가 어린 어떤 사람이, 내가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얘기를 해주었을 경우에, 제주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9가) 어, 알았저! (응, 알았다)
- 나) \*어, 알았주!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공통어에서 '-구나, -지'를 [비로소 앎] 및 [미리 알고 있음]으로 나누어 놓는 직관을 응용해 볼 수 있다.<sup>25)</sup> (9가)는 대답에서 화자가 비로소 알게 되었음을 청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10가) \*가: 인 지레 큼저
- 나) 가: 인 지레<sup>26)</sup> 큼주 (그 아이는 키[길이] 크다)
- (11가) \*가: 인 지레 큼저 이?
- 나) 가: 인 지레 큼주 이? (그 아이는 키[길이] 크다, 그렇지 않은가?)
- 다) \*가: 인 지레 크~~지~~저
- 라) 가: 인 지레 크~~지~~주 (그 아이는 키[길이] 크다)

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적에,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잘못을 고치려는 함의가 들어 있는 듯하다. 이는 use 범주의 어떤 기능을 갖는 화용 첨사이다.

- 25) 여기서 대립적인 요소는 '비로소 : 미리'이다. 즉, 사전에 정보가 주어져 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인데, 그 정보는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 추정 가능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이 개념은 뒤에서 '강한 믿음'으로 통합될 것이다.
- 26) '길다'라는 형용사에서 '에'라는 접미사가 붙어 있는 것이다. 공통어에서 '에'에 의해 만들어진 낱말들은 어원상 '의'로 표시되는데('두께'는 '둔기'로 상징되고, '키' 또한 '크+'의'로 상징됨), 제주 방언 또한 동일한 접미사인지는 잘 알 수 없다. 공통어의 '길이'에 대응하는 낱말은 '기력지'(길+역지)인데, 아마 두 접미사들이 '에, 역지'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 게 아닌가 의심된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10)과 (11)에서는 앞의 경우와 정 반대가 된다. 이 예문의 경우에도 결코 '하대, 평대'의 구분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10나)와 (11라)를 비교하면, '-읍-'이라는 형태소의 유무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 형태소는 청자 대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형태소가 실현되지 않은 (11다, 라)의 사례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11라)만이 수용될 뿐이다. 이는 "미리 대강 알고 있어서 단정함", 또는 "자신의 짐작이나 판단"이라는 의미를 '-주'라는 형태소가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가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11가, 나)의 사례에서, (11나)가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자신의 짐작이나 판단을 청자에게 물어 사실 여부를 재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가) \*우리 밥 먹읍저!

나) 우리 밥 먹읍주! (우리 밥 먹읍시다!)

다) \*우리 밥 먹~~지~~!

라) 우리 밥 먹~~지~~주!(우리 밥 먹자!)

(12)에서는 청유 형태의 문장으로 실현되어 있다. (9, 10, 11)에서는 서술 단정의 서법을 갖고 있었지만, (12)에서는 행동과 관련된 청유의 서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들이 동일한 형태소임을 논증하려면, 먼저 언어 환경의 분포를 따져야 하겠는데, 동일하게 어말 어미 위치에 나온다는 점에서 다른 분포를 가질 수 없다.

(13가) \*우리 밥 먹저 마썸!

나) 우리 밥 먹주 마썸! (우리 밥 먹자 말씀입니다. 밥 먹읍시다)<sup>27)</sup>

27) 대우를 표현하는 화용 첨사뿐만 아니라, 다음처럼 대우 뜻이 들어 있지 않은 화용 첨사가 실현되기도 한다.

① 우리/느네 혼저 먹주게!(우리/너희들 먼저 빨리 먹지 그래!)

② 우리/느네 혼저 먹주기!(우리/너희들 먼저 빨리 먹지 그래!)

②에서 첨사 '기'는 '게'와 특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분포가 제약될 경우가 있다. 순전히 의도를 표현하는 어말 어미 '-게'가 있는데, 이 경우에 주어로는 반드시 '우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형태소가 실현될 경우에는, 화용 첨사 '기'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③ 우리 혼저 먹게게!(우리 먼저 빨리 먹지 그래!)

④ \*우리 혼저 먹게기!

이런 분포는 첨사 '기'의 화용 의미가 '게'와 다소 다름을 암시하는 듯하다. 필자가 느끼기

(13)에서와 같이 화용 첨사 추가 가능성 여부도 서술문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형태소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점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서술/명령 서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들을 다른 형태로 지칭하는 길이 있고(-추, -추₂, ……), 이와는 달리 동일한 형태소가 여러 형태소에 걸쳐 쓰이는 것으로 가정하는 길이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택하기로 한다. 후자의 방식에서는 서술문에서 상정한 이 형태소의 의미 자질이 동일하게 청유법에도 적용됨을 밝혀야 한다. “미리 대강 알고 있어서 단정함” 또는 “자신의 짐작이나 판단”이라는 의미 자질이 행동을 요구하는 청유법과 관련되려면, 한 단계 높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필자는 단정·판단·(강한) 짐작이 강한 ‘믿음’(확신)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고, 이 개념이 청유법이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개념과 연결됨으로써, ‘의도’라는 도출 의미가 나오는 것으로 상정한다.<sup>28)</sup> 어떤 조건이 만족됨으로써 도출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처음서부터 의도를 나타내는 형태소와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고유하게 의도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특정한 상태(지향성)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가 실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함의를 하지 않는다(중립적이다). 그렇지만 도출된 의도는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행위 함의적이다. 이를 변별 자질로 만든다면 [±실제 행위 함의] 또는 [±행위 수행 함의] 여부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자질로써 다음 예문의 차이를 설명해 낼 수 있다.

(14가) 내가 장발되 가 보져 흐는데,……(내가 葬地에 가 보고자 하는데,……)

나) 내가 장발되 가 보주! (내가 장지에 가 볼 게!)

(14가)는 의도를 나타내는 형태소 ‘-저 하다’(-고자 하다)<sup>29)</sup> 실현되어 있고, (14

에, ‘게’는 청자에게 화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통보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는 다만 화자의 믿음만을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대립적으로 표현하면 ‘게’는 [+믿음을 통보함, +청자 반응 야기]로 볼 수 있지만, ‘기’는 [+믿음만을 보여 줌, -청자 반응 야기]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28) 강·약이라는 척도가 잘 수립된 개념이라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나누어, 앞쪽에는 수행성의 함의를 부여하고, 후자에는 지향성의 함의를 부여하는 길도 상정할 수 있다.

29) 여기서 ‘-저’는 앞에서 다룬 ‘-저’와는 다르다. 앞에서 다룬 것은 ‘비로소 알았음을 통보’해주는 것이다. 의도 표현의 ‘-저’는 기본 형태 배열이 반드시 ‘-저 하다’를 바탕으로 하여, 이것이 절단에 의해 ‘-저’로 실현되기도 하므로, ‘-저’와 ‘-저₂’로 달리 나타내야 옳다. 여기서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나)는 도출된 의도 형태소를 갖고 있다. 똑같이 의도 형태소라고 지칭함을 자칫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14가)는 행위 실행 여부에 대한 함의가 없이, 다만 특정한 상태의 마음 가짐만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14나)는 행위 수행이 이루어짐이 속뜻으로 녹아 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지향성(intentionality)을 언급하는 것이 제 1 기능이라면, 도출된 의미를 갖는 '-주'는 수행성(performance)을 언급하는 것이 그 기능인 것이다. 강한 믿음이 수행성의 의미로 도출되는 과정은, 자문 형식의 의문문 어미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질문 형식으로 기능하는 일과 매우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내 책 어디 있지?" 自問 → "내 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당신이 내게 응답으로써 정보를 주기를 바란다 → "내 책이 어디 있니?" 質問).<sup>30)</sup>

### 4. '-수-'를 지속상과 대우 형태소 '시+우'로 분석하는 오류

현평효(1985)에서는 여러 곳에서 '-수-'가 완료 존속을 나타내는 '시'와 '우'의 결합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논의는 대략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미완료 동작상 형태소 '-암'과 미완료 동작 지속상 형태소 '-암시-'의 대립을 세우고, 다시 '-암시-'의 이형태로 '-암수-'를 세운다. '비 오쿠다'에서 '-쿠-'를 '쿠+우'의 결합

---

는 원래 의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쓰임과 도출된 의미로 의도를 갖는 형태소의 쓰임이 서로 다름을 드러내기 위해 예시한다. 필자는 '저 하다'에서 '하다'는 '반짝반짝하다'에서 관찰되는 접미사 '하다'와 동일하게 '묘사'(depiction) 동사로 이해하고 있다.

- 30) 필자가 제주 방언 '-으크-' 형태소에 대한 글을 쓸 적에, 명확히 '-을 것'과 대립되는 점을 지적하지 못하였는데, 그 차이 또한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여, '-으크-'는 화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게 되지만, '-을 것'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사실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공통어의 경우도 동일하다. '-겠-'은 화자의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우선이고(intentionality oriented), '-을 것'은 실제계에서 일어날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우선이다(factuality oriented). "우리 나라 대표가 내일 오전에 유럽 대표들과 회의를 가질 것이다."는 일어날 사실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이지만, ".....회의를 가지겠다."는 발화하는 화자의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이 두 형태들이 결과적으로는 교집합의 내용을 가지게 되지만, 여전히 내포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다.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도 '화자 마음의 상태 언급'이라는 자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짐작, 추정]이라는 자질로는 왜 이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는지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내가 그걸 잘 모를 것이다."라는 문장이 왜 수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쉽게 이뤄진다. '을 것'은 사실성을 지향하여 쓰이는 것이므로, 최소한 이를 말하는 화자는 어떤 사실성이 예정에 따라 일어날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실이 화자 자신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 모순 또는 자가 당착이 생긴다. 나,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일을, 다른 사람의 믿음처럼 언급하는 것은, '정신병'과 같은 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을 밝힌다. 동일하게 '-수-'를 지속 형태소와 대우 형태소의 결합인 'ㅅ+우'로 분석한다. 일견 논리 전개가 정연한 듯하다. 그러나 첫 번째 조건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결론 또한 오류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여, 문제는 동작상 형태소가 전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곱쭈다, 좋쭈다'(곱습니다, 좋습니다)와<sup>31)</sup> 같이 이른바 상태성 동사인 경우에는 동작상 어미가 붙지 않고 실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전혀 'ㅅ'을 지속상 형태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sup>32)</sup> '-수/우'는 공통어에서 종결어미 '-소/오'처럼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어간 자음 받침 아래에서는 '수'가 나오고, 받침이 없을 적에는 '우'가 실현되는 것이다.

#### IV. '-수/우-' : '소/오+이'로의 재분석 가능성

여기서는 제주 방언의 고유한 대우 형태소처럼 생각되어 온 '-수/우-'가 결코 고

31) '곱다, 좋다'는 하위 방언에 따라 '고우다, 조우다'로 실현될 수도 있다. 필자와 같이 근무하는 어느 동료 교수는 구좌읍 출신인데, 그 분의 경우 이 형태의 실현이 전형적이다. 이는 앞의 환경에 있는 자음들이 탈락되거나 재구조화된 뒤 없어진 요소만큼 보상적인 음운이 들어가면서 '-으우'로 실현된다고 기술할 수 있다. '-으우'에 대한 첫 지적은 정승철(1995, 1997)이고, 필자의 생각으로는 [+신세대]라는 자질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기술에서도 더 설명되어야 할 사실이 남아 있다. '작다(小)라는 말은 제주 방언에서 '족다'로 소리나는데, 이 상태 동사에 다음처럼 '-으우' 및 '-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다. 필자에게는 ②가 더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① 그 신 족으우파?(그 신발 작+으우+파, 그 신발이 작습니까?)

② 그 신 족수파?(그 신발 작+수+파, 그 신발이 작습니까?)

'-으우'와 '-수'가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음이 사실이라면, 의문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왜 ①에서는 경음화되어 있고, ②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이 두 예문이 의미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이 판단이 옳다면, 왜 경음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만일 '족+으우+파'로 표상되어 도출되어 나온다면, 인접해 있는 원순모음(우+ㄷ+u+w)이 융합되어 [족으파]라는 표면형이 나올 것이다. 이 표면형에는 대우 형태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원순모음(우+파)들이 서로 변별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장음화를 실현하거나 다른 변별 요소를 추가하는 길이 있다. 장음화는 제주 방언에서 무표적으로 쓰이는 음운 기제가 아니다. 따라서 사이 시옷 요소가 들어가서 초기 표상이 '족+으우+ㅅ+파'로 되었으리라 본다. 필자의 설명에서는 결국 '수파?'와 '-우파?', '-웃파?'는 동일한 의미 표상이 되는 것이다.

32) '-우/수'가 음운론적으로 제약된 이형태임은 이미 성낙수(1992:50) 홍종림(1995:151) 정승철(1995:155)에서 지적된 바 있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유한 것이 아님을 논의하고자 한다.<sup>33)</sup>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신구 문화사)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방대한 책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던 형태소 실현이 있었다. 대우 형태소 '-우-'가 무가에서는 빈번하게 '-웨-'로도<sup>34)</sup> 나타난다.

(15가) 문영감 똥이웨다 (723면: 문영감 똥+이+우+다)

나) 풀은 안테레 휘는 법이웨다 (82면: 풀은 안으로 휘는 법+이+우+다)

다) 그도 마웨다 (643면: 그것도 말+우+다, 그것도 싫다)

이런 자료를 처음 접할 당시에는, 단순히 무당들이 자신의 말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문체론적 변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20년이 흘러 대우 체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지니게 된 지금은, (15)와 같은 자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두 형태소(오·이)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우-' 형태소의 기원에 대한 언급들로서 세 가지 주장이 있다. 현평효(1977, 1985 재수록:163 이하)에서는 '-우-'가 신라 노래에서 보이는 '-이-'(音)와 기능은 다르지만 분포가 같다고 보고 있으며,<sup>35)</sup> 특별한 논증 없이 '-고다'(古如: 제주 방언의 '-쿠다'를 반영하는 형태로 봄)가 '-우-'의 실현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승철(1995:156)에서는 '-습/술-'으로부터 변화되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방언의 대우 형태소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홍종림(1995)에서도 비슷하게 '-습/술

33) 제주 방언과 함경 방언에서 '우'라는 형태소를 보고한 것은 小倉(1944)에서가 처음이라고 한다. 성낙수(1992:49)에서는 '우'와 '웁네다'를 비교하면서, 전자가 덜 형식적이고 더 고유한 형태로 생각하였다.

34) 제주 방언에서는 '외'가 중모음 [we]로 실현된다. 필자는 이를 '웨'로 전사하기보다 '외'로 쓰고 그 발음이 중모음임을 언급하는 쪽이 더 가독성(可讀性)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원래 자료 전사의 표기를 따라 둔다.

35) 필자는 이전의 해독과는 전혀 다르게, 현화가의 (꽃을 꺾어) '獻乎理(音)如'를 "받오리[오이]다"에서 "받오리[외]다" 정도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결 어미와 선어말 어미의 배열인 [-오#이-]가 [외]로 되는 데에는 먼저 모음들 사이에서 이중모음 융합이 일어나야 하고, 남아 있는 콧소리 자음이 받침으로 통합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音]과 [외](중모음 we)은 1:1로 대응되는 것이며, 그 뜻은 "받-오리-오#이다"의 구성을 가지므로 "받들겠습-입니다"로 직역할 수 있고, 현대 표현으로는 "받들겠습니다"로 될 것이다. 필자는 '먹자+스구나, 가자+은다'처럼 종결 어미 뒤에 다시 종결 어미가 나타나는 구성을, 신라 노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17세기 전후로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녕이다, -녕이다' 형식 또한 '-는-이#-이다'가 '나-이다' 또는 '녕이다, 녍이다'로 표상된 것으로 이해한다.

--으이-'으로부터 '-수/우-'가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36)</sup>

(16가) 습 > ㅅT(zew) > 소 > 오 > 우

나) 습 > ㅅT(sew) > 소 > 수 > 쑤

(17가) 습+으이: ㅅ으이 > 으이 > 외 > 오 > 우

나) 습+으이: ㅅ으이 > ㅅ으이 > 쇠 > 소 > 수

(16)은 정승철(1995)의 제안이고, (17)은 홍종립(1995)의 제안이다. (17)에서는 '-으이-'가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제안에서 특이한 점은 공통적으로 '오'에서 '우'로 모음이 바뀌는 추이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쑤'를 제주 방언에서 '속'으로(또는 '큰들개'를 '건들개'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필자도 그 개연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6)과 (17)은 (15)의 자료를 설명할 수 없다. '웨'라는 표면형을 이끌어 내려면 원순모음 '오/우'와 폐모음 '이'가 상정되어야 한다. 필자 또한 폐모음의 존재는 (17)의 제안대로, 말하는 이의 공손을 표시하는 '이'에서 왔다고 본다. 그러나 객체(대상)를 높이는 '습'의 존재는 상정하지 않는다. 대신 청자를 대우하는 격식투의 종결어미 '소/오'를 상정한다. 필자는 종결 어미 뒤에 다시 종결 어미가 붙는 구조를 가정하고 있다.

이 구조는 결코 유표적인 형식이 아님은, 이미 앞에서 (2)의 도표 및 관련된 각 주에서 살폈다. 한국어 통사 구조를 논의하면서 이 구조를 주목하지 못한 것은, 실사(어휘범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허사(기능범주)의 실태에 주목해 보지 못한 언어학 흐름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종결 어미가 실현되었지만, 왜 다시 종결 어미가 붙는 것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앞 부분의 종결 어미는 대상이나 객체에 대한 언급을 청자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건(사태)과 관련하여 화자의 믿음이나 희망 또는 태도를 드러내려면, 그 방법은 화용 침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종결 어미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두 방법이 모두 다 쓰이고 있다.

36) 여기서는 '먹읍서, 갑주'에서 볼 수 있는 '-읍/바-'도 함께 '-습-'으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오직 '-읍/바-'만이 '-습-'과 관련될 수 있으며, '-수/우-'는 이와는 달리 '-ㅅ/오+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최근 방송에서 방영되는 사극들을 보면, 군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말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18가) 갔소이다, 했소이다

나) 잡으오이다, 먹으오이다

이들은 분명히 "갔소, 했소, 먹으오, 잡으오"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누구나 갖게 된다. 사전에서조차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 형태소 배열은, 대체 어디서 연유되는 것일까? 필자는 격식체의 청자 대우 형태소인 '-소/오'에 다시 화자 겸양 또는 공손을 표시하는 '-이-'가 종결 어미와 함께 덧붙은 형식으로 본다. 앞에 있는 종결 어미는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를 언급함으로써 완결된다. 그렇지만 그 사건(사태)에 대한 화자의 마음 속 태도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종결 어미의 형식을 빌어 화자의 겸손 또는 공손의 태도를 덧붙이는 형식이다. 필자는 이 배열이 정확히 제주 방언의 '-수/우-'의 본질이라고 본다.

(19가) -소#-이--다: 소이다 > 소이다 > 췌다 > 수다

나) -오#-이--다: 오이다 > 오이다 > 췌다 > 우다

필자는 (19)의 구조에서 먼저 ㅅ 자음이 ㅍ로 약화된 뒤 탈락되어 alif로 된 뒤에 (ㅇ → ㅎ → ㅅ), 다시 응축(또는 융합)의 과정을 거쳐 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바뀔으로써(췌/췌→수/우), 제주 방언의 '-수/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15)의 예문들은 응축 과정의 중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주 방언은 (18)과 달리 왜 (19)처럼 응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상대적으로 제주 사회의 단순한 신분 계층으로 말미암아, 명사 요소들이 분화가 엄격하지 않았거나 붕괴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동사가 명사와 균형을 맞추면서, 객체(대상) 대우·청자 대우·화자 겸양의 층위가 구조적으로 통합되는 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현화사에서 발견되는 'ㅍ'이 'ㅇ'(중모음 weŋ)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추정(각주 34 참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융합 과정이 제주 사회의 위상에 의해 야기된 것만은 아니라고 논의될 수 있다.

### V. ‘-읍/ㅂ-’과 ‘-수/우-’의 분포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제주 방언의 청유 또는 명령 서법에서 나타나는 형태소 ‘-읍/ㅂ-’을 보기로 한다. 이 형태소에 대해서는 홍종립(1995)에 분포와 성격들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읍/ㅂ-’은 불연속 형태소로서 반드시 ‘-네/테-’에 응축 또는 융합되어 있는 ‘-이-’와 공기하며, 객체(대상) 대우와는 관계가 없고, 오직 청자 대우만을 표시한다.<sup>37)</sup>

(20가) ‘-수/우-’와 ‘-읍/ㅂ-’의 교체는 평서·의문법 어미인가, 아니면 여타의 어미인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잠정적으로’ 결론할 수 있다(홍종립 1995:156).

(20나) ‘-수/우-’와 ‘-읍/ㅂ-’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이다. 그 변이 조건은 앞의 것이 평서법 어미 ‘-다’와 의문법 어미 ‘-과/스’에 전접되고, 뒤의 것은 기타의 어미(즉, 시상의 ‘-테/네-’와 청유 명령 서법의 ‘-주/서’)에 전접된다(홍종립 1995:162).

(20)은 그곳에서의 결론인데(몇 자를 바꿈), (20가)를 (20나)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20가)에서 굳이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덧붙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21가) 철수 학교 감쑤다/갓쑤다 (철수가 학교에 가고 있다/가 있다)

나) 철수 학교 감내다/감테다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갑디다)<sup>38)</sup>

(21)은 모두 서술 단정을 하는 문장으로, 동일한 서법 어미 ‘-다’가 실현되어 있다. (20)의 예측대로라면, (21)의 어느 예문은 비문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적합한 사례들이다. 이 예문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서법에 따른 “배타적인 분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또한 시간 표현 형태소의 차별성으로 말미암아 내포 의미가 다르다.

37) 또 중요한 사항으로, ‘-수/우-’가 형용사에는 쉽게 이어지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상 형태소 ‘-암-, -암시-’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필자는 이 사실을 간단히 ‘-수/우-’의 형태소가 상태 속성을 요구한다고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본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시상 형태소를 취하면, 상태의 속성을 띠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동사 어간+동작상능상태).

38) 대우를 표시하는 형태소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가네, 가데’로 말해지는 데, 이는 각각 ‘가+ㄴ+이’와 ‘가+더+이’로 분석되며, 맨 뒤에 있는 종결 어미 ‘-이’는 공통어에서 찾아지는 ‘먹으이, 하이, 잘 가이’와 같은 계열로 생각된다.



앗/아시-'의 출현은, 'X가 가다'라는 사건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경험 완료]의 자질은 가진 '-더-'의 출현은, 'X가 가다'라는 사건을 화자가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경험하였음(더 이상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이런 내포 의미의 차이는 다시 격식성의 차이를 함의할 수 있다. '-암-, -암시-'와 같은 형태소를 갖는 표현은 사건(사태)에 대한 언급이므로, 객관적 사실을 지향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느(느)-, -더-'와 같은 형태소를 갖는 표현은 화자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므로, 주관적 사실을 지향하는 표현이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언급일수록 청자 자신이 판단이 함께 묵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청자가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주관적 사실에 대한 언급일수록 청자 자신이 고유하게 판단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에서 판단 또는 행위에 청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된다. 청자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쪽이며, 청자의 몫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청자를 더 대접해 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만하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21나)가 (21가)보다 더 정중한 표현, 다시 말하여 더 격식적인 표현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21)은 서법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서법 속에서 얘기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읍-'이라는 형태소가 '-느/더-'(또는 '-느/더-') 형태소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동작상 형태소 '-암시/아시-'를 실현시키는 경우가 있다.

(23가) 먹엄십네다(먹+엄시+읍네다, 먹고 있을 것입니다)

나) 먹어십테다(먹+어시+읍테다, 먹어 있었습니다)

(23)과 같이 둘 이상의 시간 표현 형태소들이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각 형태소가 맡는 기능이 서로 다름을 말해 준다. 핵어인 동사를 기준으로 하여, 동사와 인접한 시간 표현은 사건이나 사태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 표현은 화자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다시 '-읍네다/읍테다' 형태소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미진한 사실 두 가지가 더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제주 방언의 '-읍-'은 객체(대상) 대우와는 관련이 없고, 오직 청자 대우에만 관련된다. 둘째, '-읍-'은 유표적으로 '-네/데-'하고만 공기되어야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한다(\*-읍암시다). 이 두 사실은 옛글 자료에서 발견되는 형태소들의 기능과는 다르므로, 제주 방언에서 몇 단계의 변화 과정이 상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옛글 자료에서 '-습-'은 객체(대상) 대우에 관련되고 '-이-'는 화자의 겸양(공손)과 관련된 다. 필자로서 아직 그 과정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형태소가 서로 합쳐지면서 '습네다(습니다)' 형태가 되고, 그 기능도 또한 화자인 나를 낮추고 듣는 사람을 높이는 청자 대우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 과정들을 거꾸로 상정해 보기로 한다.

객체 대우와 화자 겸양 가운데 어느 요소가 청자 대우로 되기 쉬울 것인가? 둘 모두 고유한 형태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개념상으로 객체와 청자가 교집합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 객체 대우가 더 확대되어 청자 대우로 바뀌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객체(대상)라는 말은 화자인 '나' 이외의 사람(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 가운데에서, 주어 요소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가리킨다. [-화자, -주어]라는 다소 유표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추가되는 자질이 약해지거나 없어짐으로써 오직 [-화자]의 자질만이 남게 되고, 이 자질이 [+청자]라는 자질로 재 조정된다고 가정하겠다. 만일 객체 대우가 청자 대우로 바뀐다면, 화자 겸양의 결과와 겹치게 된다. 화자는 청자를 지향하여 겸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이 '-읍-'과 '-이-'를 공기관계에 놓이게 하고 하나의 형태소처럼 융합시키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

뿐만 아니라, 시간 표현 형태소를 근거로 하여 살필 때, (21가)는 사실성을 지향하여 진술되는 표현이라면, (21나)는 화자의 경험성을 지향하여 진술되는 표현이다. 사실성을 지향하여 진술될수록, 그 표현 속에 청자를 높이는 형태소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최적이다. 반면에, 화자의 경험을 지향하여 진술될수록,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임의의 형태소가 나타나야 한다면, 선조적으로 먼저 구현되는 것이 가장 대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필자는 '-읍-'이 사건의 완료 여부를 언급하는 동작상 형태소와 공기되지 않는 이유를 개념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본다. 동작상 형태소는 사건의 완료 여부를 언급하므로, 핵어인 동사 어간에 제일 가깝게(또는 직접)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자를 대우하는 형태소 '-읍-'이 또한 듣는 이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핵어인 동사 어간에 제일 인접하는 것이 최적이다. 결국 두 요소 모두 서로 핵어에 인접하려고 경합하고 있는 셈이다. '동작상' 형태소가 선택되면, 청자 대우 요소는 뒤에 실현되어야 하고, '청자 대우' 형태소가 선택되면, 화자의 사건 경험 요소는 선조적으로 뒤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4가) [[V+ 청자대우 + 경험여부 + 무표적 종결어미] 화자공손 + 종결어미 화용첨사  
 [[가+읍+늑+이] 이+다] 게 → 갑늑이이다게 → 갑네다게  
 [[족+읍+더+이] 이+다] 게 → 족읍더이다게 → 족읍테다게
- (24나) [[V + 대우 종결어미] 화자공손 + 종결어미 화용첨사  
 [[먹+업+소] 이+다] 게 → 먹업소이다게 → 먹업쇄다게 → 먹업수다게  
 [[크+엇+소] 이+다] 게 → 크엇소이다게 → 컷쇄다게 → 컷수다게

(24)에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화자의 경험성을 지향하여 표현할 것인지, 외재적인 사건성을 지향하여 표현할 것인지에 따라 표현이 나뉘어진다.<sup>41)</sup> 화자의 경험에 초점을 모으면 (24가)처럼 청자를 대우하는 표현이 핵어에 인접할 수 있고, 경험 미완료 형태소 '늑'과 무표적인 종결어미 '이'로 일단 문장이 완결되고 나서, 다시 공손 자질을 근거로 청자 대우의 자질을 새롭게 가진 '이'와 종결어미 '다'가 덧씌워진다(밑줄 그어진 부분). 이 과정은 다른 연구의 논의와 차이가 없다. 만일 사건 완료 여부에 초점을 모아 표현한다면, (24나)의 표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41) 제주 방언에서 '아프우다'와 '아팜수다'는 아픔을 경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쓰인다. '아프우다'는 화자인 내가 경험 주체이며 주어가 된다. 그러나 '아팜수다'는 화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된다. 의미역으로 이를 표시하면 '아프우다'는 <경험주 experiencer>가 주어이며, '아팜수다'는 <대상역 theme>이 주어가 된다. 구조적으로 보면 '아프우다'는 내부 감각 동사로 하나의 논항(경험주)만을 필요로 하지만, '아팜수다'는 대상인 환자를 관찰하는 관찰자도 더 들어가 있어야 하는 외부 대상 지각 동사로서 두 개의 논항(공범주의 경험주 및 대상)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아팜네다'는 결코 내부 감각 동사로 쓰일 수 없고, 경험주와 대상 의미역을 갖고 있는 외부 대상 지각 동사로만 쓰인다. 동일한 동사이지만, 어떤 형태소들이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어휘 의미 내용이 변동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대립적으로 보인 사례는 외부 대상 지각 동사로서 '아팜수다, 아팜네다'의 경우에 해당한다. '아팜수다'는 대상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고, '아팜네다'는 화자의 지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고 있다.

##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동작상 형태소 '암/앗'과 청자 대우 형태소 '소/오'가 실현된다. 다시 이 표상 위에 앞에서와 같은 새로운 종결어미가 덧붙여지게 되고, 융축 또는 융합 과정에 의해 최종 표상이 도출된다.

이상의 과정은 설명의 필요에 의해 필자의 생각에 따라 재구조화된 내용을 드러낼 뿐이다. 실제 제주 방언을 쓰는 사람의 머리 속에는 '-읍네/읍데-' 형태가 개별 항목으로 기억되고 있고, '-수/우-' 형태 또한 단일하게 기억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

## VI. 제주 방언 연구의 의의: 직관과 사실의 거리

제주 방언의 시상 또는 시제에 대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는 시간 체계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간 체계로 구분되어 있음이 드러났듯이(예문 22 이하), 제주 방언 대우법에 대한 연구도 대우 현상에 담겨 있는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설명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제주 방언을 한국어의 다른 하위 방언과 구별하려는 잘못된 논의에 대하여 일찍이부터 의심을 품어 왔고,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해 왔다. 피상적인 직관에만 의존하여 제주 방언을 과대 포장하려는 연구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제주 방언은 어떤 언어가 기원이고 그 언어 위에 다른 언어가 덧붙여져 있다는 식의 켜번은 너무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낭만적 주장 이상의 의미 외에는 없다. 제주 방언 현상을 대상으로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에 맞추어 더 정밀한 설명을 베풀어 주어야 옳다.

필자는 대우 형태소를 대상으로 하여 제주 방언의 독특한 내용으로 언급되는 '-수/우-' 또한 공통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다만 융합 과정이 더 추가되어 있으며, 이것이 제주 방언의 매개 변항(매개 인자)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더 이상 제주 방언을 외계인 ET의 언어마냥 유별나게 고립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제주 방언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매개 변항(매개 인자)들을 갖고 있으며, 후속 연구들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히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대우법과 관련하여 필자는 아직 제주 방언이 추가로 갖고 있는 매개 변형(매개 인자)의 위계를 전반적으로 다 밝힐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하위 방언으로서 앞에서 제시한 (1) 및 (2)와 같은 열거에서 포착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필자의 논의가 정밀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를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다. 후속 연구들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단계 더 높은 연구 결과들을 내어 주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 출판부
- 고영진(1991), “제주 방언의 회상법의 형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의 이해와 인식
- 고창근(1993), “제주도 방언의 청자 대우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거자(1973), “제주도 방언의 존경접미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지홍(1992), “(-겠-)에 대응하는 (-으크-)에 대하여,” 제주도 언어 민속 논총  
 \_\_\_\_\_(2000), “동사구와 명사구 기능범주들의 관련성에 대하여,” 백록어문 16
- 문숙영(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문순덕(1999),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용후(1960, 1978 재간), 『제주 방언 연구 : 고찰편』, 과학사
-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송상조(1990),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 출판부
- 우창현(1993), “제주 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_\_\_\_\_(1997), “제주 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이남덕(1982), “제주 방언의 동사 종결어미 변화에 나타난 시상 체계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0
- 이승녕(1957, 1985 재간), 『제주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장영준(2000), 『한국어 통사구조 새로보기』, 박이정
-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대학사  
 \_\_\_\_\_(1997가), “제주방언의 특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어문 4

제주 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 \_\_\_\_\_ (1997나),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
-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도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 홍종립(1991),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_\_\_\_\_ (1994), “제주방언의 평서범어미에 대한 고찰(1),” 서울대학교 신청어문 22
- \_\_\_\_\_ (1995), “제주방언의 상대존대형태에 대하여,” 강신항박사 정년퇴임기념 논문집